베데스다선교병원 이야기꾸러미

베데스다선교병원 소식지 **발행인** 임현석 **편집인** 마이클 리 **주소** P.O.Box 22672, Kampala, Uganda **TEL.** +256-393-274584 **홈페이지** http://www.ubmh.org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_마 25장 40절 中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_마 25장 45절 中

목차

2020 1~3
(Vol. 17)

컬럼_ 02 위기 상황에서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 **강지은**
베데스다 NEWS_ 03 한인교회 메디컬 캠프 참여 외
07 2020년도 1분기 안과 소식
아웃리치 & 캠프_ 08 우간다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 **정하복**
17 우간다 힐링미션 소감 I | **이레베카**
21 우간다 힐링미션 소감 I | **문옥합**
기도나눔_ 23
협력 및 후원 안내_ 24

위기 상황에서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선하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요즘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뉴스를 듣고 있다.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살다 살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말씀하신다. 어떤 사람은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최악의 경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180만 명이 넘은 확진 자와 10만 명 이상되는 사망자수를 보도한다. 우간다도 이제 시작하고 하는 단계인데 확진자 수가 어느덧 50명을 넘어섰다. 병원에 찾아오신 한국 분들을 보면 공포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친구들은 다 한국으로, 또 미국 집으로 돌아갔는데 혼자 미국 대학교 기숙사에 남아 있는 큰 딸을 생각할 때,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생각할 때 염려가 되기도 한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확진 자가 있으면 환자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할까 생각할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힘찬 삶, 부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남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우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웃고 기뻐하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지고 치료제가 생산되면 기뻐할 수 있을까? 그 때가 되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등을 놓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다시는 이런 위험이 없는 세상이 찾아올 것인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새삼스럽게 느끼고 고백한다. 풍요로운 물질이, 고도로 발전된 과학 기술이,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는 문화와 체육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줄 수 있을까?

온 인류가 같이 배를 타고 가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광풍 앞에 두려워하고 있다. 날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업데이트 되는 소식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 배를 타고 갈 때 위기 상황에서 선장의 말을 잘 듣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에 선장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자. 선장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록 하시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분이시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길 힘을 주신다. 개인적으로도 한 달 넘게 왼쪽 어깨와 팔이 아파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며 아내도 두통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의 선생님께 문의를 드렸는데 운동을 계속하면 좋아질 것이라고 하셨다. 스트레칭도 하고 걷기 운동도 하지만 통증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고쳐주셨다는 마음을 주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이사야 53장 5절).' 하나님께서 이미 고쳐주셨는데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기 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기 시작하였다. 이때 힘들더라도 꾸준히 운동을 할 수 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선하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폭풍가운데 있을 지라도, 심한 질병과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는 안식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주위에 어려움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다.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두려움 가운데 지키는 것과 평안함 가운데 하는 것은 다르다. 날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다.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 여정에 선장되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평안함 가운데 이 광풍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강지은 진료부장
(내과전문의/UBF 마케레레 챕터 대표)

한인교회 메디컬 캠프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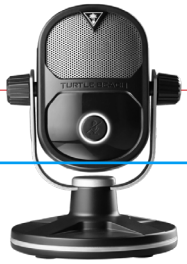
산모 초음파 검사를 하는 김도르카스 선교사

우간다한인교회(오성욱 목사 담임)와 우리 병원은 1월 8일(수)~10(금)까지 수도 캄팔라에서 8시간 가량 떨어져 있고, 카라모종(케냐 마사이부족과 같은 혈통)이 사는 모로토 지역에서 메디컬 아웃리치를 개최했습니다. 한인교회 오성욱 목사와 김경수 선교부장을 비롯한 중고등부, 청장년과 우리 병원 임현석 원장(소아과), 배쥬드 선교사(안과), 김도르카스 선교사(산부인과)와 우간다 병원에 실습을 나온 배가은(호주 의과대학 재학)자매, 베데스다를 방문한 정하복(과테말라 의과대학 재학) 자매, 이민철 선교사 등 41명이 참여했습니다.

전체 캠프 기간은 3일 이었지만, 사역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이동에 소요했고, 둘째 날 하루만 의료혜택이 필요한 카라모종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이날 아웃리치에서는 의료사역을 중심으로 기도사역과 찬양사역, 캠프가 개최된 교회와 학교 주변에서 노방전도, 가난한 지역 주민에게 식량을 전달하는 등의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메디컬 팀은 약 350여명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특히, 이번 의료사역에서는 안과와 산부인과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내에 있는 정부 병원에 방문하고 싶어도 교통편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여의치 않아 안과와 산부인과를 방문하지 못하는데, 이번 기회에 산모들은 초음파 검사로 임신기간과 태아의 발육 정도를 확인해주고, 안질환 환자들에게는 안약을 제공하고,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캠프 후에 캄팔라에서 수술을 해주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간다한인교회와 우리 병원은 협력하여 선교사역을 돕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고, 한인교회 성도들과 선교사 자녀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되돌아 보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 힐링미션캠프 개최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 4일간 케냐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우간다 동부 부시아(Busia) 지역에서 2020년도 힐링미션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총 42명(한국 31명, 캐나다 1명, 우간다 10명)이 참여하여, 마사푸(Masafu) 병원과 마을 두 곳에서 약 1,560여 명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병원팀은 성형외과, 치과, 안과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성형외과에서는 이번에 처음 힐링미션에 참여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오형근 선생님이 지방종(Lipoma), 낭종(cyst), 종기(mass) 등의 환자 13명을 수술했고, 치과에서는 수년째 우간다를 방문하는 서아브라함 목자가 60여명의 환자에게 필링과 신경치료, 발치 등의 치료를 했습니다. 안과는 배쥬드 선교사가 마사푸 병원 OCO(Ophthalmic Clinic Officer) 2명과 함께 305명의 환자를 진료하여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 50명을 선별하였고, 이들 환자는 2주 후에 마사푸 병원에서 개최하는 안과 캠프에서 무료로 수술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빌리지팀은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통증클리닉, 문화사역팀으로 구성되어 2년째 힐링미션 캠프 현장 코디네이터로 섬겨주는 박민수 선교사가 선정한 마을 두 곳에서 마을당 2일씩 진료하여 총 1,180여 명의 지역 주민을 진료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예전과 달리 숙소에 도착한 저녁부터 비가내려 캠프를 마치고 캄팔라로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계속 비가왔습니다. 캠프 첫 날 아침 내리는 비를 보며 걱정이 앞섰습니다. 우리 병원에는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가오면 환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리는 비를 보며 주민들이 진료장소로 나오지 못 할 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빌리지팀이 첫 번째 진료 장소인 블룸니(Blumni) 교회에 도착했을 때, 교회에는 한 사람만이 넓은 공간에서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팀은 당황했지만, 머지않아 하나님

마을 교회에서 진행중인 힐링미션캠프

의 깊으신 뜻을 알게되었습니다. 매년 힐링미션캠프 의료진은 “많은 환자를 진료하기 보다는 한 사람의 환자에게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다짐하곤 했지만, 막상 현장에 나가보면 밀려드는 환자들로 우리의 다짐은 다짐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비로 인하여 우리의 다짐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일반적으로 힐링미션이 건기에 진행되어 잠자리는 더위와의 싸움이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비로인해 잠자리가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빌리지에서는 지역 주민에게 접수비로 2,000 실링씩 받았습니다. 정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구별하고, 주민들에게 진료비를 내고 제대로된 진료를 받는다는 자부심을 심어주고, 지역 교회의 사역에도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틀씩 진료를 마치고, 빌리지팀은 진료 장소를 제공해준 블룸니(Blumni) 교회와 루미노(Lumino) 교회에 환자들로 부터 받은 접수비 95만 실링(약 260$)과 140만 실링(약 380$)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힐링미션캠프는 지역주민과 가난한 지역교회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캠프의 특징 한 가지는, 지난 해 까지는 힐링미션캠프참여자 대부분이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UBF) 광주 3부 멤버로 구성되었지만, 이번에는 참여자 30여명 중 광주 3부는 11명만 참여했고, 나머지는 다른 지부들에서 참여했습니다. 바라기는 힐링미션캠프에 더 많은 UBF지부와 성도들이 참여하여 계속하여 우간다를 섬길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비전케어 아이캠프 개최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부시아 마사푸 병원에서 비전케어 아이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캠프에는 우리 병원 안과팀(안과전문의 최영단, 배쥬드 선교사, 간호사 아졸리, 수술보조 모세스, 행정원 이현열, 박주향)과 비전케어 본부 간사 최인선, 간호사 김윤아, 염광교회 자원봉사자 3명(김영옥, 문수웅, 송명숙)이 참여하였으며, 1월 말 개최한 힐링미션캠프에서 선별한 환자를 포함하여 총 53명에게 새로운 빛을 선물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당초 예상과 달리 어렵사리 진행되었습니다. 힐링캠프 기간 중에는 아이캠프도 협조를 해줄것 처럼 말하던 병원장이 캠프 준비단계에서부터 캠프진행에 필요한 공문 발급을 거부하고, 막상 캠프를 시작하자마자 억지스러운 내용으로 트집을 잡고, 캠프를 방해했습니다. 예를 들면, 안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수술 받은 환자에게 처방받은 약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며 처방을 다시하라고 하거나, 입원 병상에 침대가 없어 일부 환자를 복도에 앉아있게 했는데, 환자를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다고 하고, 이러한 이유를 들어 캠프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가져오는 등 어이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해의 목적

아이캠프를 마치고 참여자들과 수술받은 환자들이 함께

은 캠프에 참여하는 병원 직원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NGO가 병원과 함께 캠프를 개최하며, 항상 물질적 보상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캠프팀은 첫째 날 부터 캠프를 중단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했습니다. 최영단 선교사는 다음 날 병원장과 캠프 진행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였고, 2~3시간의 지리한 회의끝에 캠프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 선교사도 원장의 부당한 요구에 회의를 끝내고 캠프를 종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백내장으로 시력을 잃어가는 환자들을 생각하며, 원장과의 회의 동안 원장의 요구를 경청하고, 비전케어와 캠프의 목적, 수술의 필요성을 최대한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결국 병원장이 캠프에 협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해야할 것은 우간다 현지인들의 그릇되어 보이는 행동에 화를 내고, 동역을 거부하기 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고 끈기있는 설득의 과정을 거쳐 함께 일하도록 만들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간다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캠프에 비해 어렵고 힘든 캠프였지만, 다시 시력을 회복한 53명의 환자들을 보며 모두 웃음지으며 캠프를 마무리 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며, 모든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남수단 '한빛부대' 의무대 일행 방문

2월 12일 남수단 '한빛부대' 의무대원 일행이 우리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UN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된 남수단 한빛부대는 남수단 재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빛부대는 재건사업의 일환으로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고통당하는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한국으로 후송하여 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 환자의 경우 한국 후송 절차가 복잡하고, 수술후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고, 특히 환자 한 명을 수술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 많은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이에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찾고자 남수단 주변국에 있는 병원을 살펴보던 중 우리 병원 홈페이지에서 비전케어 사역을 보고, 의료 협력 체계 구축을 논의하고자 우리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빛부대와 우리병원간 의료협력 체계를 논의하는 의료진

이날 만남에서는 한빛부대가 수행하는 평화유지 활동, 대민지원 활동과 우리 병원의 사역을 소개하고, 한빛부대와 우리 병원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개략적인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기본적인 협력방안으로는 우리 병원 안과와 외과 등 의료진이 한빛부대의 요청이 있을 때 한빛부대를 방문하거나 환자를 우리 병원에 후송하여 적절한 수술과 치료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합동참모부와 국방부, 이외 다양한 정부 기관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의료 혜택이 필요하지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앞으로 한빛부대와 우리병원간 의료서비스 협력 체제가 잘 구축되어 보다 많은 남수단 사람들이 눈을 뜨고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도합니다.

르완다 나누리 메디컬 센터 아웃리치

강지은 선교사(내과 전문의)는 2월 24일(월)~26일(수)까지 3일간 르완다 나누리 메디컬 센터에서 대장 내시경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총 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나누리 메디컬 센터는 2019년 3월 르완다 수도 키갈리에 개원한 선교병원으로 내과(박준범 선교사, 내과 전문의, 원장)와 소아과(백지연 선교사, 소아과 전문의) 진료와 함께 내시경, 초음파, X-Ray 및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누리 메디컬 센터는 르완다에서 거의 유일하게 작동하는 내시경 장비를 갖추고, 내원 환자와 외부, 특히 르완다 군 병원에서 의뢰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내시경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 선교가 위 내시경 검사는 많은

임상 경험이 있어 잘할수 있었지만, 대장 내시경 검사는 경험이 없어 수련과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강 선교사는 지난 해 대장내시경 현장 교육을 제안했고, 이번에 교육이 성사되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박 선교사는 검사를 진행하며 생겼던 의문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계기였고, 특히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여건 속에서 강 선교사의 방문으로 힘과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대장내시경 검사하는 강지은 선교사(좌)와 박준범 선교사(우)

나누리 메디컬 센터는 병든자들을 치료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무료진료(월/수/금)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환자들을 위한 유료진료(화/목)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무료진료 대상은 정부에서 인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이외에는 모두 유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 선교사는 병원 개원을 앞두고 무료진료와 유료진료 일자를 결정하기에 앞서 많은 기도와 고민, 논의를 거듭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사람의 생각과 계획, 고민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기를 원하며, 병원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무료진료 기간을 3일로 결정 했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매달 병원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부마 섬 외과 아웃리치 개최

3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부부마섬 베데스다 진료소에서 외과 전문의 신동수 선교사가 외과 아웃리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아웃리치는 지낸 해 7월과 10월에 이미 외과 아웃리치와 캠프를 통해 많은 환자들을 수술했음에도, 섬의 정부 헬스센터와 차량으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베데스다 진료소가 위치한 부칼리 지역에 아직도 많은 환자가 있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팀

어 도움이 필요하다는 마을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 아웃리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신동수 선교사가 탈장 4명, 종양 3명, 음낭수종 3명, 낭종 2명, 낭종 1명 등 11명의 환자를 수술했으며, 임현석 선교사는 소아과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당초 아웃리치는 사전에 예약한 40여 명의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한 주간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많은 예약 환자가 방문하지 않아 3일로 줄였습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는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내도록 했습니다. 수술비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지불 가능한 금액을 책정했고 돈이 아니라 닭 한마리나 이에 상응하는 고구마, 감자, 카사바, 물고기 등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록 가난하더라도 일정 댓가를 내고 수술을 받게 함으로서 당당하게 진료소에 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이유는 아웃리치 기간 중 식재료 준비를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워낙 외진 시골이어서 장을보고 음식을 준비하는게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의 협조와 지역 주민들의 협조로 환자들을 수술하며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아웃리치에는 신동수(외과 전문의), 임현석(소아과 전문의), 송이삭 선교사와 수술보조 모세스와 간호사 지미, 에라스무스, 미국에서 우간다를 방문한 노다윗이 참여했습니다.

첫 복강경 수술 실시

2월 27일(목) 르완다 나누리 메디컬 센터에서 복막염이 의심되는 한인 환자가 있다며 수술이 가능한지 문의해왔습니다. 르완다 외과 의사에게 수술을 맡길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어린 소녀였고, 밤 늦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환자를 진찰한 신동수 선교사(외과전문의)는 28일(금) 오전에 복강경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수술은 오전이 아니라 오후에 진행했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마

취과 의사가 오전에 다른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간다는 마취과 의사가 약 30명 내외로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마취과 의사의 일정에 따라 수술 일정이 좌우됩니다.

이날 수술은 지난해 도입한 복강경 기계로 진행했습니다. 이미 익숙한 복강경 수술이었음에도, 우리 병원에서 시술하는 첫 복강경 수술인 만큼 신동수 선교사는 수술 시간 내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주일(3월 1일) 새벽 비행기로 르완다로 돌아갔고, 잘 회복되었다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복막염 복강경 수술을 집도하는 신동수 선교사(우)

임현석, 최영단 선교사 자자 되다.

지난 2월 4일 미국 시카고에서 기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임현석, 최영단 선교사의 장녀 임혜진에게 가정을 이룬지 만 3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딸을 선물로 주신것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으로 '하선'으로 지었습니다. 이로서 임현석, 최영단 선교사는 '자자(jaja)'가 되었습니다. 우간다 말인 자자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의미합니다. 임현석, 최영단 선교사는 손녀를 얻자마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손녀의 사진으로 바꾸며 자자 된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영단 선교사는 딸의 출산 3주 후에 미국을 방문하여 딸과 함께 지내고 지난 3월 19일 우간다로 귀국하여 3주간의 격리를 마치고 병원에 무사히 복귀했습니다. 하선이가 건강히 자라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2020년 1분기 안과 소식

1. 자체 펀드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안과서비스 제공

-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에 걸쳐 각각 7개월, 9개월간 코피(KOFIH) 사업을 마치고 올 해부터는 기간 사업이 없는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없지만 자체 개발 펀드인 "기적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안과 수술(1년간 모든 안과 수술을 최소 비용을 환자에게 분담)과 카잔시 보건소에서 안과 외래진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 베데스다에서 1월 11건의 백내장, 2월에는 5건의 백내장, 2건의 녹내장, 3월에는 10건의 백내장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카잔시 보건소 방문은 잦은 아웃리치로 인해 최소 월 2회 목요일 방문하기로 카잔시에 통보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안과 외래팀(진료 최영단, 운전 주드, 간호보조 사이몬 피터 총 3인)을 구성하여 1월은 2회, 2월 2회 방문 진료하였습니다.
- 학교검진은 굿네이버스와 협력하기로 결정하여 4, 5월에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휴교로 추후로 연기했습니다.

2. 아이 캠프 및 아웃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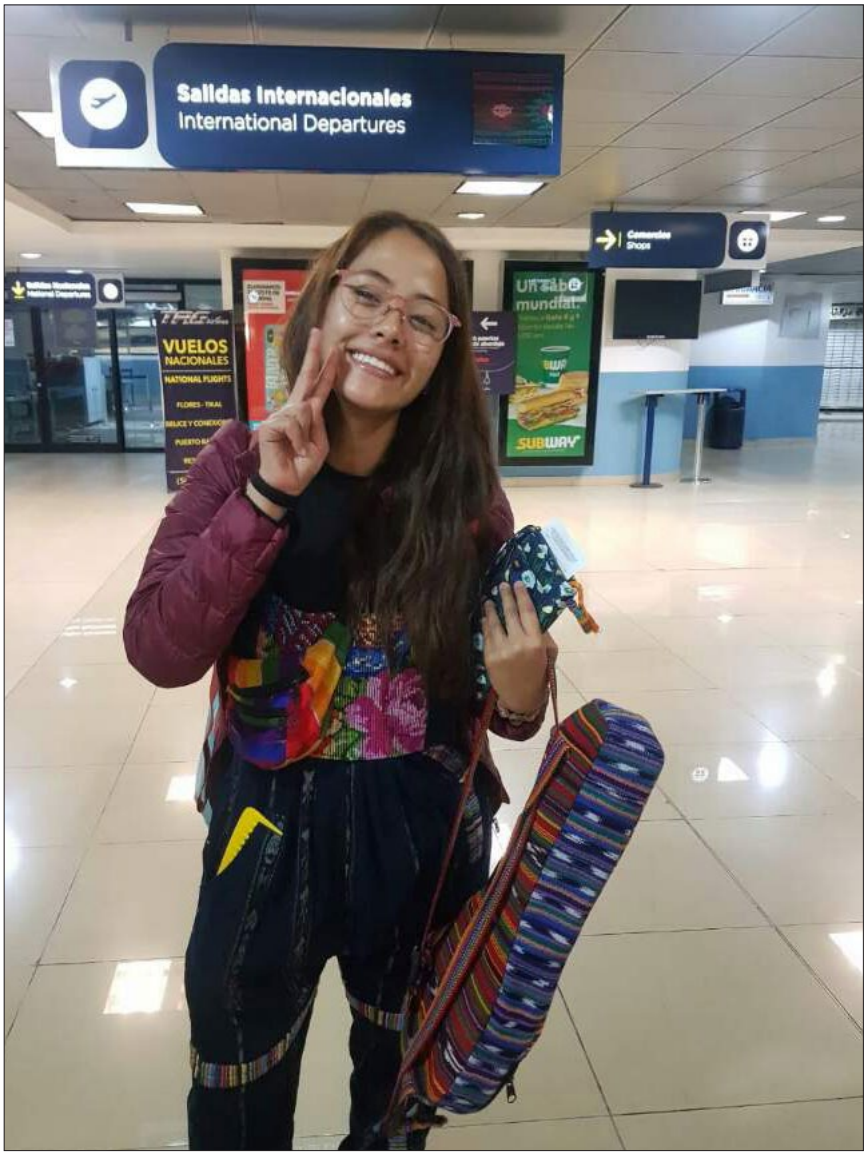
구 분	참여자 및 내용	
부시아 마사푸(Masafu) 병원 캠프 (2월 10~13일)	참여자	안과전문의: 최영단, 배쥬드 / 간호사: 아졸리, 모세스 / 행정원: 이현열, 박주향, 쥬드 본부간사: 최인선 / 본부간호사: 김윤아 / 봉사자: 노을, 금영옥, 문수웅, 송명숙
	내 용	백내장 수술: 53명 외래진료: 93명

3. 비전케어 KCOC 단원들 철수

- 2월 19일 이현열 단원이 2년간의 봉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3월 3일 박주향단원이 1년간의 봉사후 귀국하였습니다. 2015년이래 지난 5년간 사업수행기간동안 가장 헌신되고 유능한 단원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업무를 수행하여 코피 사업뿐아니라 베데스다 안과 발전을 이뤘습니다.
- 신규 행정원 단원은 코로나사태로 인해 우간다 입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간다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저는 저의 생각하는 방식과 인생에 대한 이해와
제 삶 전체를 변화시킬 놀라운 여행을 계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My name is Blessing Jung, I'm 19 years old and I'm from Guatemala a small country from Central America. I arrived in Uganda on November 25th and stayed there for almost 2 months. I decided to come on this trip because I'm a Medical Student currently in the second year, I also wanted to learn and get some medical experience to continue my career with motivation. I still know very little so there are many things I couldn't help with, my first week was not very busy so I started socializing with Bethesda Medical Centre staff, I was interested in learning local language so they helped with some Lugandan words that would help me to survive during my time in Uganda; when that happened I realized how kind Ugandans are.

That weekend I went to Kapchorwa a town in the Eastern Region of Uganda, with Dr. Shine Shin, Michael and a nurse, I was excited because this would be my first time on a Theater attending surgeries. The Surgical camp took place in Kapchorwa General Hospital, it lasted 4 days, the first day Dr. Shine started checking some patients that would be operated. That's when I saw for the very first time clinical cases like Lipomas, Hydroceles, Hernias, and more. That day at the theater I had the simple task to pass the materials they needed like cotton, povidone, stitches, blades, mesh, saline water, etc. We couldn't attend as many patients as we had planned by cause of time and place conditions. I thought I would faint in the middle of some surgery but

저는 중앙아메리카의 작은 나라 과테말라에서 온 19살 정하복입니다. 우간다에는 2019년 11월 25일 도착하여 거의 두 달을 지냈습니다. 현재 의과대학 2학년으로 의료인으로서의 분명한 동기를 발견하고 의료 현장을 경험하고 배우고자 우간다에 왔습니다. 아직 의학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았고, 첫 한 주 동안은 그다지 바쁘지 않았기에 베데스다선교병원 가족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우간다 토속 언어를 배우고자 했고, 병원 직원들은 제가 우간다에 머무는 동안 생존에 도움이 되는 몇몇 루간다(Luganda) 단어를 가르쳐 주었습

it didn´t happen, I was truly surprised and shocked how the human body is and I realize how important anatomy is. Dr. Shine worked with some local doctors who helped him during the surgeries, they were really happy because Dr. Shine explains them very well every procedure they were doing.

The second day we arrived certainly early right away to start surgeries, I always organized a small desk where I had all the materials, I left everything handier for the nurse and the doctor. This day was really exciting because I did things I have never done in my life before like injecting antibiotics vaccines at the beginning I was scared because I didn't want to hurt the patient but one nurse from the hospital taught me how to prepare the vaccines because some of the medicines are on powder and they need to be mixed with water for injection. After that Dr. Shine just told me to inject this patient and I already knew

니다. 단어를 배우면서 우간다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알게되었습니다.

첫째 주말, 저는 신동수 선교사님(외과 전문의), 마이클 선교사(메디컬 캠프 코디네이터), 그리고 수술실 보조 모세스와 함께 우간다 동부 캅쵸라(Kapchorwa) 지역에 방문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참여하는 수술이었기 때문에 저는 매우 흥분했습니다. 외과 캠프는 캅쵸라 병원에서 4일간 개최했습니다. 첫째 날, 신 선교사님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을 진찰했습니다. 저는 이날 지방종(lipoma), 음낭 수종(hydrocele), 탈장(hernia) 등과 같은 질환들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날 수술실에서 저는 수술에 필요한 솜, 포비돈, 수술용 실과 바늘, 메쉬, 식염수 등을 전달해 주는 간단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 팀은 제한된 시간과 장소의 열악함으로 우리가 계획한대로 많은 환자를 수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수술 중간에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간의 몸이 어떠한지를 보고 놀라움과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해부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신 선교사님은 현지의사들의 도움을 받아 수술을 진행하며, 수술 과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현지인 의사들은 매우 행복해 했습니다.

둘째 날, 수술 시작 훨씬 이전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작은 책상 위에 준비되어 있는 수술 도구들을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항상 정리 정돈했습니다. 이 날은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항생제 주사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에게 고통을 주면 안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섰지만, 병원 간호사가 어떻게 항생제를 준비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었습니다. 일부 의약품은 가루형태라서 주사를 위해 주사용 수액과 섞어줘야 했습니다. 항생제가 준비되자 신 선교

사님은 항생제 주사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고, 저는 이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기에 항생제를 주사했습니다. 모든 수술이 달랐고, 아이에서 어른까지 각각의 수술에서 이런 저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수술을 위해서 마취과 의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 아이의 수술에서 눈이 휘둥그래 졌습니다. 꼬마의 등에 뼈와 같이 단단한 10센티미터 정도 크기의 종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술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how to do it. All surgeries cases were different and I could learn something from each case from children to adults. We also had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the anesthesiologist for the children's surgeries. I was legitimately amazed about one child's surgery, this kid had a big tumor on his back made of bone. Everyone in that room was surprised.

셋째 날, 저는 더 적극적으로 수술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생소해서 힘들었지만, 수술에 관한 기본적인 것들과 각각의 수술에 필요한 수술 세트들을 배우면서 보다 숙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팀은 병원 의료진과 수술실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두 건의 제왕절개 수술을 볼 수 있었고, 놀라웠습니다. 이날 저는 모든 수술과정에서 보호와 안전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수술 환자 한 명이 HIV 양성이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수술을 절반 쯤 진행했을 때 한 현지인 의사가 환자가 HIV 양성이라고 알려주었고, 곧 바로 수술을 중단하고 우리 모두는 수술장갑을 두겹으로 끼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HIV

The third day I started to feel more like into it, more skillful because at the beginning I struggled confusing everything, I also learned the basics of surgery and all types of kits that are needed depending on the surgery. We shared that theater with the hospital so I also had the opportunity to see for the first two Caesarean Sections I was amazed. This day I learned the most important thing of every surgical procedure that is the protection and security measures, we had a patient with HIV positive, at the beginning we didn't know about it but in the middle of the surgery, one of the local doctors told us that this patient was HIV positive so right away the surgery stopped and everyone started to get double protection like double gloves, I finished that day shocked because I have never been this close or exposed to

this kind of disease.

Fourth and last day of surgeries I was feeling sad because this Surgical camp was about to finish, we were running out of surgical materials and I was amazed how Dr. Shine managed everything to finished without struggling. Every day we finished sterilizing the tools and packing them for the next surgeries with a nurse named Moses, I helped to dry, pack, and label every surgical kit. During this surgical camp, we couldn't operate every patient because of the surgeries' conditions and some of those surgeries required more specialized equipment. We finished every day exhausted but glad, I'm thankful for this wonderful opportunity since I was able to develop my medical knowledge because I had the opportunity to see 49 surgeries less than one meter away. We went back to Kampala the next day.

During my time here I couldn't help as much as I wanted to, Bethesda Medical Centre is well staffed there are nurses and health personnel to cover all the necessities of the hospital. When surgeries were booked at the hospital I attended them just to watch, I had the opportunity to watch a Strabismus Surgery with Dr. Bae an Ophthalmologist. I was amazed by how steady and precise Dr. Bae's hands are, he didn't hesitate at all. I was surprised about the tools of eye surgery set because

와 같은 질병에 이렇게 까지 가까이 노출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술 마지막 날인 넷째 날, 수술 캠프가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우리는 수술 재료들을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저는 신 선교사님이 모든 수술을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저는 수술실 보조 모세스와 함께 다음 수술을 위해 매일 수술 기구들을 소독하고 수술 세트를 준비했는데, 저는 수술 도구를 말리고, 세트를 준비하고, 각각의 수술 세트에 라벨을 붙이는 것을 도왔습니다. 수술 캠프 동안 우리는 수술이 필요한 모든 환자를 수술할 수 없었는데, 수술실 환경이 열악하기도 했고 일부 수술은 보다 특별한 수술 장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녹초가 되었지만 기뻤습니다. 저는 1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49건의 수술을 보며 제 의료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캄팔라로 돌아왔습니다.

우간다에 머무는 동안 저는 제가 원하는 만큼 베데스다선교병원에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병원에서 필요한 간호사와 의료인력들이 잘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수술이 예약되면 저는 수술을 보기 위해 수술실에 들어갔고, 하루는 안과 전문의 배 선교사님이 집도하는 사시 수술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안과 수술에 사용되는 아주 작은 도구들과 작고 조심스런 바느질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흔히 시행되지 않는 사시 수술을 직접 보고, 사시가 어떻게 눈의 근육에 영향을 주고, 수술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they are extremely tiny, and stitches are smaller than the pinky finger. I'm grateful that I could witness this eye surgery because is not a common case, and I could understand how Strabismus affects the eye muscles and how the surgery can help.

I also had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an NGO called Vision Care going to different communities to check eyesight. One of the NGO members taught me how to use a device that takes pictures of the patient's pupils and prints out a receipt, it was really fun for me, and I realize how human pupils are different and unique like fingerprints. Unfortunately that First day working with the NGO I got sick so that day at BMC I was cannulated with antibiotics and medicine for my stomachaches. We went every Wednesday to a community called Kajjansi and Thursdays to Wakiso, I enjoyed my time there because I could interact more with local people and I also practiced my Lugandan, I could see how important eye check-ups are.

Bethesda Medical Centre closed for almost two weeks because of holidays, so that time I spend it with my Ugandan Friend Ruth, a Pharmacist from BMC, and with two Korean friends Joy and John they are also volunteering for Vision Care. They showed me many places and how to move around in Kampala, and also I

또한 저는 시력 측정을 위해 여러 마을을 다니는 NGO 비전케어와 함께 일하기도 했습니다. NGO 직원 중 한 명이 저에게 환자의 눈동자를 촬영하고 결과를 출력하는 장비의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재미있으면서도 사람의 눈동자가 지문과 같이 어떻게 다르고 독특한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NGO와 일하던 첫째 날 저는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머물며 항생제 수액을 맞고 약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수요일에는 카잔시(kajansi), 목요일에는 와키소(wakiso)라는 마을에 방문했습니다. 저는 많은 현지인들과 교류하고 제가 배운 루간다어를 실습할 수 있어서 이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안과 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베데스다선교병원은 성탄절과 연말 연시 휴가로 열흘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BMC 약국에서 근무하는 우간다 친구 루스(Ruth), 비전케어에서 봉사자로 일하는 두 명의 한국인 친구 죠이(Joy)와 죤(John)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은 저와 함께 여러 곳

had the opportunity to know the Nile River that is one of the largest rivers around the world and Lake Victoria the second largest lake.

Uganda is becoming a developing country, before coming to Uganda I thought "Oh Uganda is an African country, it may be dangerous, without water, and nothing to eat", I thought that everyone was dying of thirst and hunger but is not like that. Uganda, The Pearl of Africa, is a rich and beautiful country full of nature, green landscapes, perfect weather with nice and friendly people. This country is full of exotic food I could try for the first time Jackfruit (Fenne) a big and funny looking fruit, I tried grasshoppers they were delicious and the most delicious pineapple I've ever eaten in my entire life. Uganda is a country with a great variety of food, fruits, and vegetables. BMC provided lunch for everyone, so I could try local food like posho, matooke, cassava, beans sauce, chapat Jessica the cooker of BMC cooks delicious because I tried local food from outside and it doesn't taste that good.

I enjoyed my time in Uganda, it was a life-changing experience everything I did like going to local markets, waking in the downtown, taking boda bodas (motorcycles) to move around, watching the city movements, how merchants work and move around. I realize that Uganda is developing fast is not a poor country like social media presence African countries

을 여행하며 어떻게 캄팔라를 돌아다녀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저는 나일강이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중에 하나라는 것과 빅토리아 호수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우간다에 방문하기 전에 "우간다는 아마도 위험하고, 물도 없을 뿐 아니라 먹을 것도 없는 아프리카 국가이고, 모두가 가뭄과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간다는 개발도상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진주인 우간다는 자연과 녹색의 풍경과 완벽한 날씨, 매력적이고 친절한 사람들로 넘쳐나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우간다에는 제가 처음으로 먹어보았던 크고 우스꽝스럽게 생긴 잭푸룻(Jackfruit), 우간다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서 저도 먹어봤던 메뚜기, 제 인생 전체에서 처음 맛본 가장 맛있는 파인애플 같은 이색적인 음식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우간다는 아주 다양한 음식과 과일, 야채가 있는 나라입니다. BMC는 모든 직원에게 점심을 제공해줘서 저도 조리사 제시카가 요리해주는 맛있는 뽀쇼, 마토케, 카사바, 콩소스, 차파티 같은 현지 음식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병원 밖에서도 현지 음식을 맛보았지만, 제시카의 요리만큼 맛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우간다에서 시장에 가고, 시내를 걸어다니고, 보바보다(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고, 상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도시가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 등을 보면서 경험한 모든 것들은 전혀 새로운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우간다가 소셜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식

사를 하거나 둘러볼 만한 색다르고 다양한 장소들이 있는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UBF 마케레레의 많은

there are many fancy and expensive places to go for dinner or just to hang out.

I'm very grateful to Kampala UBF for the many shepherds and missionaries, I'm thankful for the time I spend here because I got to know more about God and His wonderful work. Since I came here I started bible studies with Missionary Grace, she's also in charge of BMC Drugstore, every week whenever I have time I studied the bible with her. I'm really glad because I needed someone to guide me through God's word and I could learn that I need to find "My own God" not my mother's or friends' God.

After BMC vacations with a Korean church from Kampala, Dr. Luke, Dr. Bae, Dr. Kim and her daughter Kaun she is also a med student, we had the opportunity to be part of a medical mission in another village called Moroto. Moroto is a town from Karamoja in the Northern Region of Uganda, we checked more than 350 hundred patients including children and adults in just one day. My job was to take pictures of the patients' pupils in the ophthalmic station with Dr.Bae, but I moved around through the different stations where Dr. Luke and Dr. Kim were. I watched for the first time an ultrasound of a pregnant woman I was truly shocked and amazed how babies can be, some of the patients didn't know for how long they been pregnant but that machine helped with that. Dr. Luke was the busiest doctor that day he checked babies, children and adults

목자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더욱 깊이 알게되어 감사드립니다. 우간다에 도착한 이후 저는 BMC 약국을 맡고 있는 그레이스 선교사님과 성경공부를 시작했고, 매주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선교사님과 성경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말씀가운데로 인도해줄 누군가 필요했고, 엄마 또는 친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의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배울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휴가가 끝나고 임현석, 배쥬드, 김도르카스 선교사님과, 배 선교사님의 딸이며 의대생인 가은과 캄팔라에 있는 우간다한인교회와 함께 모로토 지역에서 개최된 의료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어린이와 어른 350여명을 진료했습니다. 저의 역할은 배 선교사님이 진료하는 안과에서 환자의 동공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었지만, 임 선교사님과 김 선교사님이 진료하는 소아과와 산부인과를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임산부 초음파 검사를 처음으로 보면서 충격과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어떻게 아이가 자라나는지, 초음파 기계의 도움으로 임신 기간을 알지못하는 몇몇 산모들에게 임신 기간을 알려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임 선교사님은 끝 없이 줄서 있는 아기와 어린이, 어른 환자를 진료하는 가장 바쁜 의사였습니다. 일부 환자는 아프지 않았지만 공짜로 의약품을 받기 위해 오기도 했습니다. 의료 선교를 마친

it was like a never-ending line of patients, some of them were not even sick but they wanted to get medicine for free. We finished that medical mission very tired, this medical mission lasted three days one entire day just to reach de place, one day of working and one entire day to go back to Kampala in spite of the time it was a good experience.

Bethesda Medical Centre also has a Health Center in Buvuma Island, I was about to leave Uganda but I could leave the country before going to Buvuma Island. I was shipped off into Buvuma with a nurse called Barbra on Monday 13th, someone at the hospital told me you're going to be carried by a man to the boat I could understand at that moment. When we arrived at Jinga trading Centre that is the place where the boats called water bus ships to Buvuma I understood what they were talking about a Sebbo (man on Lugandan) carried me to the bus it was a really fun experience. The water bus takes almost three hours to arrive at the island, they stop by different villages on the island to pick up more people, and I enjoyed the view of Lake Victoria. Buvuma Island Medical Centre is in a small village where barely cellphone network works, the only patient I got to see was a farmer that cut himself with an ax. My three days there were beautiful, I enjoyed my time there far from the city noise, people there are so kind and friendly especially the kids. In the beginning, I was really scared

우리는 매우 피곤했습니다. 이번 의료선교는 3일 일정으로 진행되었는데, 사역지까지 오는데 하루가 걸렸고, 사역에 하루, 그리고 캄팔라로 돌아오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시간의 제약이 있었지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베데스다선교병원은 부부마섬에서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간다를 곧 떠나야 했지만, 부부마 섬에 있는 진료소를 꼭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1월 13일 월요일에 간호사 바브라와 함께 부부마 섬에 가는 배에 몸을 실었는데, 병원에서 누군가 "너를 어떤 남자가 배까지 옮겨줄꺼야"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제서야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부마 섬으로 향하는 수상버스라고 불리우는 보트가 정박해있는 진자(Jinja) 시장에 우리가 도착해서 저는 병원직원이 이야기한 "세보(루간다어로 '남자')가 나를 버스로 옮겨준다"는 말을 이해했고, 이것은 아주 재미난 경험이었습니다. 수상버스로 부부마 섬에 도착하기까지 거의 3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상 버스는 더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가기 위해 여러 마을에 들렸고, 저는 빅토리아 호수의 풍경을 즐겼습니다. 부부마 섬에 있는 진료소는 휴대전화가 간간히 터지는 작은 마을에 있었고, 진료소에서 제가 본 환자는 도끼에 다친 농부가 유일했습니다. 3일 동안 진료소에서의 삶은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도시의 소음에서 멀어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즐겼고, 너무나 친절하고 친근한 사람들, 특히 아이들과 함께했습니다. 처음에는 섬에서 말라리아에 걸리지는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고, 섬에는 물고기 이외에 먹을 것이 많지 않아 하루에 두 끼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실 것을 알았기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부부마 섬에서 돌아온 다음 날 1월 16일 우

about Malaria on the island but I knew God would protect me even though I ate two times a day because there are not many things to eat apart from fish I had a good time. I left Uganda to my country the day after coming back from Buvuma Island on January 16th.

I'm thankful to God because he planned for me this wonderful journey that changed my entire life, my perception of life and my way of thinking. I'm thankful because I could spend almost two months alone without any relative, I thought I wouldn't survive but I did God always put someone in your way that takes care of you. I'm thankful because God put on my way amazing people like my Ugandan friends from the hospital to my Korean friends who took care of me during my time in Uganda, they become true friends. I thankful because I've gotten to witness many surgeries really close and even doing my part to help with it. I'm thankful to all the missionaries that are living in Uganda who let me into their homes, invited me for dinner and hanged me around. My entire perception of African countries changes, I leave Uganda in love.

Written by **Blessing Jung**
(Medical School Student in Guatemala)

간다를 떠나 제 고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저의 생각하는 방식과 인생에 대한 이해와 제 삶 전체를 변화시킬 놀라운 여행을 계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떠한 친척의 도움 없이 혼자서 두 달 가까이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너를 돌봐줄 누군가를 너의 길에 예비해주신다"라는 말씀을 믿고 제가 생존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우간다에 머무는 동안 저의 길에 저를 돌봐줄 병원의 우간다 친구들과 한국인 친구들과 같은 놀라운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많은 수술을 직접 보게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술을 돕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집에 들어오게 하시고, 저녁에 초대해주시고, 함께 지내게 해주신 우간다에 계신 선교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아프리카 방문을 통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프리카 나라들에 대한 모든 인식이 바뀌었고, 우간다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글. **정하복**
(과테말라 의대 2학년)

학교 검진 아웃리치 안내

베데스다 선교병원에서는 올해 부터 학교 검진 아웃리치를 개최합니다.
교육관련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께서는 아래를 참고하여 학교 검진 아웃리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및 비용

- **신청대상**
  - 한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Nursery/Primary/Secondary School
  - 한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상기 학교와 유사한 시설, 단체
- **비용: 무료**

❑ 검진 대상 및 방법

- **검진 대상: 신청 대상 학교, 시설, 단체에 소속된 학생**
- **검진 내용 및 방법**
  - 내과 검진: BMC 전문의가 유아, 청소년 문진 및 청진
  - 시력 측정: 학교 교사에게 시력검사 방법을 가르쳐 교사가 시력 측정
- **검진 후 조치 사항**
  - 내과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있을 시에 의약품 및 검사 처방전 발행 (가까운 약국이나 병원에서. 처방에 따라 검사를 받고 약품 구입)
  - 시력 측정에서 저시력 판단 시 가까운 안과로 진료를 의뢰하거나 BMC 안과에 불러 정밀검사 후, 필요시 안경 제공 또는 수술 검토 (안경제작비와 수술비는 최소 비용 청구)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상시 (단, 한 학교당 1년에 한 차례로 제한)**
- **신청방법**
  - 이민철 선교사에게 이메일(way.of.cross@gmail.com) 또는 카카오톡(ID: wayofcross, Mobile: 0781-496830)

❑ 기타

- **검진은 한 달에 한 두 차례 지역별로 시행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신청 지역과 병원 일정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
- **유/초/중/고등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건강하여 별도의 임상병리 검사를 실시하거나 의약품을 제공하지 않음.**
- **숙식이 필요한 경우 검진 신청 학교에서 숙식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능할 경우 BMC에서 부담함.**
- **유/초/중/고등학교를 제외한 상급 교육기관 검진은 성인 대상 검사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여 별도 협의에 의해 검사 진행 가능**

우간다 힐링미션 소감 I

저는 선교사들과 믿음과 사랑과 긍휼함으로 우간다를 방문한 힐링미션 참여자들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섬기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While attending the 2019 European Summer Bible conference, I was invited to join the Uganda Healing Mission by Shepherd David Park. As a recently graduated nurse in Canada, I had dreamed of one day going on a medical volunteer trip to a foreign country to help those in need but I never imagined that the opportunity would present itself so soon and from an unexpected encounter. This really showed me how God works wonderfully in ways we do not expect. After receiving the invitation to join the healing mission, I pondered and prayed about it for a few months but God really planted a fervent desire to participate in the mission and so I began to prepare and God opened the doors.

Arriving in Uganda after a long flight, the mission team went to the Bethesda Medical Centre where we were greeted by the missionaries and had a chance to see the work that they were doing in Kampala through the

2019년 유럽 국제 수양회에서 박다윗 목자님은 저에게 우간다 힐링미션에 참여할 것을 권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최근 간호사가 된 저는 해외에 나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의료 봉사를 하는 꿈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렇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루어 지리라고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분의 일을 경이롭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힐링미션에 참여할 것을 권유 받은 후 저는 몇 달 동안 깊이 숙고하며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힐링미션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심어 주셨고, 저는 준비를 시작했고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긴 비행 끝에 우간다에 도착한 힐링미션 팀은 캄팔라에 있는 베데스다선교병원에 가서 선교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메디컬 센터를 통해 선교사들이 하는 사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마케레레 대학을 섬기는 마케레레 UBF의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찬양팀과 알버트 목자가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마케레레 UBF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는 것에 고무되었습니다. 예배 후

medical centre. On the next day, we attended Sunday service with Makerere UBF which serves Makerere University. I was empowered to see the work God was doing in Makerere UBF through the praise team and message delivered by Shepherd Albert. Afterwards, we all moved to the empty plot of land where the new church building was to be built and had a ground breaking ceremony led by missionary Livingston Kang with praise and prayer to signify the start of the church construction and trees were planted to symbolize the new beginning and growth to come. Although the funds are currently insufficient to complete the church construction and property encroachment issues still need to be resolved, the members of Makerere UBF had a strong inspirational faith that God would provide and complete the work.

Following the ceremony, the healing mission team took a long bus ride towards Busia where the healing mission would take place at Masafu hospital and two villages in the area. Every morning was started early with daily bread meetings which helped us to start the day with meditation of God's word and powerful prayer. From one of the daily bread passages, Romans 9:16 "It does not, therefore, depend on human desire or effort, but on God's mercy" really spoke to me. This healing mission and all that we strive to fulfill and accomplish in life are not done because we want it or have the abilities but by the power and mercy of the Lord and I could see how God's grace and mercy made the way for the healing mission to proceed smoothly and help many people.

For the first three days I joined the surgical team at Masafu hospital where I assisted with

에 우리 모두는 새 교회 건물이 세워질 교회 부지로 이동하여 강리빙스턴 선교사가 인도하는 기공식 행사를 개최했는데, 교회 건축 시작을 위한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의미하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아직 교회 건축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고, 교회 부지 불법 점거자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마케레레 UBF 멤버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으로 이 건축을 마무리 하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공식 행사 후 힐링미션 팀은 힐링미션을 진행할 마사푸 병원과 두 마을이 있는 부시아로 가는 긴 버스 여정에 올랐습니다. 하루 일과는 새벽 기도 모임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강력한 기도가 하루의 시작을 도와주었습니다. 아침에 묵상한 말씀 중 한 구절,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은 정말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힐링미션과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수행하고 완수하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원하거나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어떻게 힐링미션을 인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첫 3일 동안 저는 마사푸 병원 수술팀원으로 참여하여 한국어와 영어를 통역하고, 성형외과 전문의 오형근 선생님이 낭종(cyst), 종양(tumors), 화상으로 구축된 피부를

translation from Korean and English and assisted with surgeries done by Dr. Oh to remove cysts, tumors, and burn scars. While screening for patients who qualified for plastic surgery, it was heart breaking to see how the patients just lived with their illness until it worsened and suffered due to a lack of knowledge, money, and healthcare services and how limited we were in our ability to help. The sad reality was that there were unfortunately many more people that we could not help compared to those we could help. The condition of the operating room was also shocking and far from ideal standards. The room was worn down, there were more equipment that was broken than functioning, the glass windows were broken in places in the recovery room where the surgeries were performed, the power went out once during a surgery, and while the hospital was equipped with an autoclave and surgical tools, it would have been very difficult without the equipment and supplies that were prepared in advance by the healing mission team. However, despite the conditions we faced, I tried to focus on our healing mission key verse Matthew 25:40 “The King will reply, 'Truly I tell you, whatever you did for one of the least of these brothers and sisters of mine, you did for me.'” to trust that God would be pleased by our very small works. By God's grace we were able to able to perform a total of 13 surgeries that removed disfigurations and put a smile on the patients' faces. We were also able to follow up on a patient for a dressing change to see that he was healing well.

On the fourth day I joined the village team and was able participate in the healing mission there by assisting at the pain clinic with preparing lidocaine

제거하는 수술을 도왔습니다. 성형외과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을 진찰하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환자들은 질병에 대한 지식도 없고 돈도 부족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질병이 악화되어 고통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슬픈 현실은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보다 그렇지 못 한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수술실 환경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술실은 볼품없고, 고장난 장비가 작동하는 장비보다 많고, 수술을 진행했던 회복실 창문은 깨져있고, 수술하는 동안 전기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는 소독기와 일부 수술도구가 준비되어 있었음에도 힐링미션 팀에서 수술 도구와 소모품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수술은 불가능했을수도 있었습니다. 수술환경이 여의치 않았지만, 저는 힐링미션 요절 말씀인 마태복음 25: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를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작은 일에 기뻐하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13명의 환자를 수술해 볼성사나운 부분을 제거하여 환자들의 얼굴에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우리는 또 수술을 마친 환자들의 상처가 잘 치료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환부를 소독하고 드레싱을 다시 해주었습니다.

넷째 날 저는 빌리지 팀에 합류하여 오전에는 통증

injections and clean up in the morning, and with face painting and bubble activities with the children in the afternoon. It was touching to see how the doctors and other members of the healing mission team were selflessly giving their time and efforts to serve the locals and spread God's word through the pantomime. In turn, the locals were very grateful and the children were so joyful that I could see why the healing mission team came back every year.

After the healing mission, our team had a tour of the Nile river and the Entebbe botanic gardens to see the wondrous nature God created in Uganda. We also visited Makerere university and prayed that Uganda may send out 25 missionaries by 2042 and that all unversity campuses in Uganda may be pioneered.

Looking back, the Uganda healing mission was an unforgettable experience. Having graduated and started work in Canada by God's grace, I was looking for a new direction. Through this healing mission, I truly experienced God's presence in the selfless service of the missionaries and the team members who came to give by faith, love and compassion. It reminded me that God's love, forgiveness, and salvation is the greatest gift of all. I had become used to and taken for granted the privileges I had living in a developed country but I was humbled and my gratitude for the blessings God has provided me was renewed through this trip. I strongly felt that I should really use these blessings to love my neighbours and help those in need as God commanded. I pray that I may continue daily bread meditation and prayer and be used to serve the least of my brothers and sisters.

Written by **Rebekah Le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urse, Canada)

클리닉에서 청소와 리도카인(마취제) 주사제 준비를 도왔고, 오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페이스 페인팅과 물방울 놀이를 했습니다. 저는 힐링미션에 참여한 의사선생님들과 다른 멤버들이 희생적인 사랑의 수고를 통해 사람들을 섬기고 판토파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캠프 후 마을 사람들은 매우 고마워했고, 아이들은 너무나 즐거워 했습니다. 저는 왜 힐링미션 팀이 매년 우간다를 찾고 있는지 알게되었습니다.

힐링미션을 마치고, 우리는 나일강의 발원지와 엔테베에 있는 식물원에 방문하여 하나님이 우간다에 창조하신 놀라운 자연을 보았습니다. 또한 마케레레 대학교를 방문하여 우간다가 2042년까지 2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간다의 모든 대학을 개척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되돌아보면, 우간다 힐링미션은 잊지못할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시작하면서 저는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찾고 있었습니다. 힐링미션에서 저는 선교사들과 믿음과 사랑과 긍휼함으로 우간다를 방문한 힐링미션 참여자들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섬기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구원이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선물임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저는 선진국에 살고 있는 특권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익숙했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저는 겸손해졌고,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새로워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침 말씀 묵상과 기도를 꾸준히 하고, 형제와 자매 중 작은 자를 섬기는데 제가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글. **이레베카**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 캐나다)

우간다 힐링미션 소감 II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선교사님들의 심령을 붙들어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우간다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40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저는 2019년 1월 23일부터 2월 2일까지 약 10일간 제13차 우간다 힐링미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광주3부에서 시작한 우간다 힐링미션이 벌써 12년이나 지났다는 사실이 세삼 놀랍습니다. 저는 우간다 힐링미션이 시작된 이후로 매년 동참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갈 수 없었는데 이번 13차 힐링미션에 기쁨이, 주영이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10여 일 동안의 단기적인 의료봉사가 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동안의 맺혀진 열매들을 볼 때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두 가정이 우간다 장기 선교사로 나가셨고, 우리 안에 선교의 비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참가한 많은 2세 목자들과 학생 목자들이 하나님의 세계선교를 향한 비전을 덧입도록 하신 열매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시끄러운 상황을 보면서도 조금만 일정이 안 맞았더라면 13차 힐링 미션의 모든 것이 무산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정확히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힐링 미션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 돌려드립니다.

우간다 마케레레 UBF는 지금은 에디오피아를 개척하고 계시는 유사무엘 선교사님이 개척하시고 현재는 광주3부 강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지부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센터와 베데스다병원은 한 장소에 위치해 있고 임누가 선교사님이 베데스다 병원의 원장으로 계십니다.

이번 13차 우간다 힐링미션에는 광주3부 목자님들을 비롯해 전주, 울산, 서울, 대구, 캐나다 등에서 오신 목자님들과 학생들 30여 명이 함께하였습니다. 국내 팀들은 인천공항에 모여 의약품과 치과, 성형외과 진료에 쓰일 장비들을 포함한 어마어마한 짐들을 항공기수화물 규정에 맞추어 분배하여 짐을 포장하고 탑승수속을 하고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에디오피아 아디스아바바공항까지 10시간의 비행, 3시간 공항대기와 환승, 또 다시 우간다 엔테베공항까지 3시간의 비행 끝에 우간다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두꺼운 겨울옷을 벗고 얇은 여름옷을 입었지만, 아프리카의 더위가 온몸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착 후 바로 캄팔라 마케레레 UBF와 베데스다병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짐을 정리하고 나누었습니다. 반가운 강리빙스턴, 그레이스 목자님, 송이삭, 엘리사벳 목자님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첫날 일정을 마무리하고 근처 숙소에서 하룻밤을 자고 바로 다음 날 주일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열정과 흥이 넘치는 2시간 반의 예배를 마치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건축역사를 이룰 부지로 옮겨가 기공식과 기념식수를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축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선하게 해결하시고 물질을 채워주시며 건축역사를 속히 이루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6시간 버스를 타고 4일간 의료사역과 문화사역을 감당할 부시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사역하는 4일내내 비가 왔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지금까지 힐링미션동안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은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새벽6시마다 다윗목자님은 은혜로운 일용할 양식 말씀을 섬겨주셨고 비가 계속해서 오면 주로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비가 멈추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기도를 받으시고 정확히 진료를 시작할 때 비가 멈추고 진료를 마무리할 때쯤 비가 내리게 하셨습니다. 덕분에 너무 덥지 않은 날씨로 사역하기 좋았습니다.

사역은 병원팀과 빌리지팀으로 나누어 이루어졌습니다. 병원팀은 그 지역 병원에 가서 성형외과 수술, 안과

검진과 수술, 치과 진료가 이루어졌고 빌리지팀은 지역교회에 간이 진료소를 마련하여 내과, 소아과, 통증클리닉, 산부인과 진료와 처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 아이들을 대상으로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비누방울 놀이등으로 열심히 놀아주었습니다. 별거 아닌 놀이에도 아이들은 너무 신나하고 재미있어했고 제가 가는 곳마다 졸졸 따라다녀 피리부는 사나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행이 지나면 옷을 버리는데 그곳 아이들은 다 찢어지고 더러운 옷들을 입고 신발이 없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맘 같아선 우리나라의 멀쩡한 옷들을 모두 가져다 주고 싶었습니다. 페이스페인팅을 하고 있는 저를 둘러싸고 구경을 하고 긴 머리카락이 신기한지 만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악성 곱슬이기 때문에 긴 머리를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두상을 주셔서 머릿발이 없어도 예뻤습니다.

연희센터와 광운센터에서 오신 형제목자님들은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과 축구로, 찬양으로 놀아주느라 기진맥진하셨지만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모습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의료팀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문화사역팀의 역할도 적지 않았습니다. 미디어의 혜택이라고는 대부분 라디오가 전부이고 풀을 뜯고 나무에 매달리고 천을 돌돌말아 노는 그들에게 저희의 놀이가 인생에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진료팀은 4일 동안 두 마을에서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병원팀들은 안과 300명 진료, 치과 60명 진료, 성형외과 13명 수술이 진행되었고 하루 사역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오는 목자님들의 모습을 볼 때 그 수고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기쁨이, 주영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염려했었지만 각자 맡은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해주어서 기특했습니다.

4일간의 부시아 사역을 마치고 나일강으로 이어지는 빅토리아 호수를 배를 타고 관광하고 타잔 영화를 찍었다는 보태니컬 가든을 둘러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우간다 힐링미션에 동참하면서 목자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보며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연세에도 매년 참석하셔서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보시는 다윗 목자님을 비롯해 각자 바쁜 현실 속에서도 적지 않은 시간과 물질을 드려 우간다 환자들을 보시기 위해 오신 의료진 목자님들, 매끼 섬기시는 사모님들, 한 달 전부터 기도와 여러 복잡한 준비들을 감당하신 목자님들, 힘들다고 요령 피우지 않고 여러 일들을 앞서가며 감당하는 학생 목자들의 수고와 헌신의 모습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한, 28년 전 유사무엘 선교사님의 희생으로부터 시작된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루어진 우간다 UBF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 얼마나 강하고 놀라운 역사인지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선교사님들의 심령을 붙들어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우간다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후년이면 30주년이 되는 우간다 UBF의 우간다 내 42개 대학개척과 아프리카 25개국 선교사파송의 기도제목을 이루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물질과 기도로 세계선교에 동참하여 쓰임받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저희 진주 UBF도 장차 선교사를 파송하며 세계선교에 쓰임받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또한 힐링미션 기간 동안 고생할 거 어느 정도 각오하고 왔는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지내도 되나 싶게 잘 지내게 하시고 촉촉한 비로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글. **문옥합**
(UBF 진주, 간호사)

Prayer Topics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을 덮고, 이 백성을 치유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날까지 베데스다선교병원은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COVID-19의 조속한 종료와 수습을 위해

COVID-19 사태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환자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전염병이 하루 빨리 수습이 되어 정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COVID-19 사태 이후의 지혜로운 방향과 적응을 위해 기도합니다.

2. 병원 확장의 장기 비젼과 병원 증축을 위해

외래 환자의 꾸준한 증가와 입원 환자 케어와 24시간 병원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병동 및 시설 확장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각 과별로 장기적인 비젼과 진료 및 수술 서비스의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기초해서 병원 확장 및 증축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각 과별 발전 목표와 비젼 가운데 구체적인 병원 서비스 시설 및 장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일들이 진행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 부부마섬 아웃리치 및 진료소 활성화

매월 한차례 베데스다 메디컬 센터의 전문의들을 부부마섬에 보내 지역사회에 필요한 전문의 진료와 수술을 진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인구가 6만이 되는 큰 섬이지만 일반의 2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나마 베데스다 진료소가 있는 곳은 의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Buvuma Health Centre IV 와는 차량으로 1시간 거리의 오지라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전무한 지역입니다. 베데스다 진료소에 정기적으로 전문의들을 파견해서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지역사회를 섬기고 간호사를 훈련하며 베데스다 진료소가 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곳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 행정 부원장 및 간호부장 인력 보내주시도록

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행정과 지원부서 인력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행정 부원장과 간호사들을 훈련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간호부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협력 및 후원

베데스다선교병원은 2002년 부터 하나님의 은혜, 동역자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성장하며
의료 서비스와 말씀으로 우간다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양한 의료 서비스와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동역자의 참여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지체들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장/단기 선교사역

1. 사역범위
1) 의료부문
- 외과, 산부인과, 마취과, 치과 등
- 간호사(현지 간호사 훈련)

2) 행정/지원 부문
- 행정, 인사, 재무 등
- 광고, 홍보, 디자인, 미디어 등

2. 자격요건
- 건전한 기독교 교단의 세례교인
- 일상생활 수준의 영어 가능자

3. 사역구분
- 단기사역: 3~6개월
- 장기사역: 6개월 이상

협력사역

1. 의료협력
1) 환자초청
- 아프리카 현지에서 진단 및 치료가 어려운 환자의 한국 초청 및 치료

2) 방문진료
-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의료 취약지역 방문을 통한 진료 실시

3) 예방의학
- 예방의학키트 (교육자료, 응급처치약품 등) 제작 및 배포

2. 의료인력 훈련
- 우간다 의료인력 한국초청 교육
-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우간다 방문을 통한 분야별 진단, 수술, 치료 방법 교육

후 원

1. 의료기기 및 의약품
- 진단 및 검사 장비 지원
- 수술 장비 및 기기 지원
- 의약품 지원
- 기타

2. 병원 운영
- 병원 건축 후원
- 열대병 연구소 설립 후원
- 의료 시설 및 설비 후원
- 병원 운영 후원

3. 선교사 후원
- 선교사 생활 안정과 자녀 교육

* 의료기기 및 의약품은 후원 이전에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2020년도 메디컬 캠프/아웃리치 일정

시 기	내 용
1.27~31	2020 힐링미션 캠프 (부시아) ✓
2.10~14	비전케어 아이캠프 (부시아) ✓
2.24~26	르완다 대장내시경 아웃리치 ✓
3.2~4	일반외과 캠프 ✓
3월~7월	유/초/중/고 학교 검진 아웃리치
5월 중	아이캠프
6월 중	일반외과 캠프
8월 중	일반외과 캠프
10월 중	부부마 섬 외과 캠프
11.16~20	비전케어 아이캠프 (소로티)

복음 사역을 위해 메디컬 캠프가 필요한 선교단체나 NGO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기독교 선교단체(선교사) 또는 NGO
- **신청방법**: 전화 또는 전자메일로 문의 또는 요청
  * 아웃리치 개최 최소 1개월 이전에 문의 및 요청 요망
  * 메일 문의시에는 아웃리치 대상 지역과 연령대별 주민 분포, 일정, 필요한 진료 과목 등의 명확히 기재 요망
- **진료과목**: 소아과, 내과(초음파 포함), 안과
  * 진료과목은 의료진의 외래환자 진료 일정과 타 아웃리치와의 일정 조정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역 참여 및 후원 방법

베데스다선교병원의 사역에 참여와 협력, 그리고 후원을 원하시는 개인이나 단체는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 문의하시거나, 후원 계좌를 통해 후원하실수 있습니다.

연락처: +256-414-530313,
+256-393-274584
bethesdamedicalcentre@gmail.com

후원계좌: 농협 615-01-146886
(예금주: (사)한국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

선교사 후원을 원하실 때는 별도 기재사항에 선교사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ubmh.org
https://www.facebook.com/BethesdaMH/
https://www.slideshare.net/ubmhnews/
"Slide Share"를 방문하시면 지난 소식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